# “원효 ‘미타증성게’, 보현행 · 점수 나타낸 詩”

### 김호성 교수, 〈불교학연구〉 특집논문서 주장

**보조 ‘돈점설’ 偈 해석 출발점**
**“미타증성게 화엄적 점수 상통”**
**보광 · 김상현 등 기존학설 반박**
**〈무량수경〉 수행관, ‘점수돈오’**

원효 스님(617~686)의 정토사상을 알 수 있는 주요 저술은 〈유심안락도〉, 〈무량수경종요〉, 〈아마타경소〉 등이다. 다른 하나의 저술은 보조 지눌(1158~1210)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하 절요)〉에 인용된 〈미타증성게〉이다. 〈절요〉에 인용된 〈미타증성게〉는 7언 8구의 게송으로 법장 비구의 정각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같은 〈미타증성게〉에 대한 보조 스님의 인용이 자신의 돈오점수설을 입증한 전거라는 것은 선행연구(보광 스님, 故김상현)를 통해 알려졌다. 〈미타증성게〉 자체를 보조의 돈오점수설에 입각해 해석하는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불교학연구〉 49집에 게재한 특집논문 ‘원효의 〈미타증성게〉와 보조지눌’에서 보조 스님의 돈오점수설에 입각해 〈미타증성게〉를 해석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정작 게송의 인용자인 보조 스님의 관점은 배제돼 있음을 지적하고 “보조의 돈오점수설이 〈미타증성게〉를 해석하는 하나의 출발점임을 깊이 천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조 스님이 돈오점수 주장 근거로 화엄사상이 배경에 놓여있음을 전제하고 〈미타증성게〉 속의 돈오점수와 화엄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미타증성게〉의 1~2구는 게송 주인공 법장 비구의 소개이며, 3~4구는 정각의 과정, 5구는 정각이자 제도 중생을 위한 길의 시작으로 봤다. 6~8구는 제도 중생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크게 살피면 1~4구는 돈오와 자리행(自利行)을 5~8구는 점수와 이타행(利他行)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타증성게〉에서의 점수가 유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이었음을 생각할 때, 〈마타증성게〉와 〈절요〉에서 말하는 점수는 화엄적 점수라는 데 상통점이 있다”며 “‘법장보살이 중생을 어여삐 여겨 48가지 초시간적 서원을 세웠다’는 6 · 7구의 입장은 화엄적 이타행, 보현행이며 화엄적 점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타증성게〉는 법장보살의 자리행 · 돈오 · 왕상회향만을 노래한 시(詩)가 아니라 이타행 · 점수 · 환상회향까지 나타내는 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무량수경〉과 〈미타증성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미타증성게〉가 〈무량수경〉을 요약하는 중송(重頌)”이라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반박 근거로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 보살의 수행은 선이 아닌 보살행 △법장 보살의 발심과 성불에는 5겁이라는 시간 차 존재 △법장 보살의 정각 과정은 발심-발원-수행-수기-성불로 완성 등을 들며, 구조적 차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무량수경〉에 나타난 수행은 돈오점수가 아닌 점수돈오”라면서 “원효의 〈미타증성게〉가 반야중관 · 화엄 · 선적 맥락에서 〈무량수경〉을 읽었고, 이 점을 보조 스님의 호응을 얻어 인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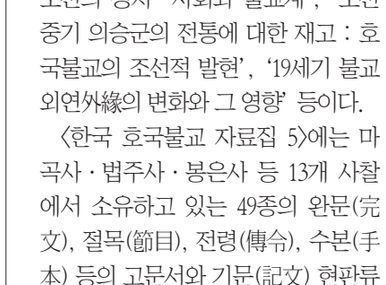
한편, 〈불교학연구〉 49집은 특집 주제로 ‘원효와 지눌의 재해석’을 다뤘으며, ‘지눌의 돈오점수와 이문정혜의 쌍수’(정혜정), ‘북미불교의 원효 인식과 이해’(김지연)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투고 논문으로는 ‘석전 박한영의 〈석림한화〉에 드러난 글쓰기 양상’(민희주), ‘중국불교에서 수계갈마의 변천’(이자랑), ‘선 수행에 나타난 분심과 자비에 대한 소고’(오용석), ‘니까야로 본 중론의 십이연기’(우동필) 등 9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호국불교 연구 망라한 논문 · 자료집 발간

### 불사연, 〈호국불교 재조명5〉 등 출간



호국불교연구 사업으로 진행된 연구 논문과 자료집들이 잇달아 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016년도 호국불교연구 사업의 결과물인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 자료집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5〉,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금산사金山寺〉를 발간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는 지난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와 토론회에서 발표된 5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주요 논문들은 지난해 3월 토론회에서의 ‘3 · 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비롯해 11월 ‘조선시대의 국가와 불교’ 주제 학술세미나의 ‘조선 초기 불교계의 보寶 운영과 그 의미’, ‘16세기 조선의 정치 · 사회와 불교계’, ‘조선 중기 의승군의 전통에 대한 재고 :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19세기 불교 외연外緣의 변화와 그 영향’ 등이다.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5〉에는 마곡사 · 법주사 · 봉은사 등 13개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49종의 완문(完文), 절목(節目), 전령(傳令), 수본(手本) 등의 고문서와 기문(記文) 현판류를 수록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중앙의 예조나 각 지방의 감 · 순영 내지 소속 군현과 해당 사찰들이 주고받은 공문서이거나, 내수사(內需司) · 영빈방(暎嬪房) 등 왕실 관련 부서와 사찰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이다. 대부분 진상(進上), 각종 승잡역(僧雜役)의 존치와 철폐를 둘러싸고 사찰과 해당 관서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의 결과가 밝혀져 있다.

호국불교사찰에 대한 연구자료집인 〈금산사〉는 호남을 대표하는 의승장 처영 스님과 태능 스님의 생애와 호남 의승활동과 금산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집은 〈금산사사적〉, 〈선조수정실록〉, 채제공(蔡濟恭)의 처영 영찬(影贊), 〈소요대선사행장(逍遙大禪師行狀)〉 등의 자료를 종합 · 정리했다.

한편,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2011년부터 호국불교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호국불교 재조명〉, 〈호국불교 자료집〉, 호국사찰자료집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 대동여지도엔 불교가 어떻게 투영됐나

### 불교사회정책硏, ‘대동여지도와 사찰지명’ 세미나

### 오는 2월 6일 국제회의장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김정호가 제작한 한국 최고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19세기 조선의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지도에는 230여 개소의 사찰명이 등재돼 있다.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수보다는 한참 적지만, 당시 문화적 상황과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대동여지도에 투영된 사찰 지리적 정보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는 오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동여지도와 사찰지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동여지도와 불교문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상학 제주대 교수가 ‘조선 지도학의 금자탑, 대동여지도의 가치와 의의’를, 김기혁 부산대 교수와 류명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공동으로 ‘대동여지도의 사찰지명 연구’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前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을 좌장으로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최연 인문지리기행 ‘서울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대동여지도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동여지도의 연구와 활용을 통한 불교인문학 분야 개척과 불교문화유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 金剛대 불문연, 티베트어 강좌 개설

### 오는 2월 6~17일 진행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는 ‘금강아카데미 제9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따시델레! 티베트어’를 개설한다.

오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간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티베트어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의는 금강대 종합강의동에서 문법과 강독으로 나눠 하루 6시간 동안 강의가 이뤄진다. 강사로는 정상교 · 차상엽 금강대 HK교수가 참여한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기숙사와 식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강의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041)731-3614

신성민 기자

## 韓 · 中 · 日 학자, 제종교장 연구 논하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13일 의천 제종교장 학술대회
### 교장문헌 연구 방안 논의

〈고려 제종교장(諸宗敎藏)〉 문헌에 대한 연구 현황을 만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1월 13일 서울 안국동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2017 고려교장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 불교장소(佛敎章疏)와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5년간 〈제종교장〉의 국내외 조사와 전산화를 진행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공개와 향후 연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는 ‘교장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 논문을 통해 “〈고려 제종교장〉은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동아시아에서 유통하는 경율론 삼장에 대한 주석서인 장소(章疏)를 수집해 간행하고 그 목록을 만든 것”이라며 “1232년 몽고의 2차 침입으로 목판이 모두 불탔다. 그동안 교장은 목록을 정리해놓은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이란 고문헌에 의해서만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월 13일 ‘2017 고려교장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 불교장소(佛敎章疏)와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제종교장 문헌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 논문을 통해 향후 연구 방법과 과제 등을 살폈다.

남 교수는 제종교장 문헌 연구를 △판본학 △목록학 △교감학 등으로 분류하고, “교장에 대한 개념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흥왕사나 광교원 이외에도 해인사 등지에서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장 등이 산일돼 간행기관에 대한 사료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남 교수는 “교장과 의천의 사상, 활동 등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동아시아 삼국에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교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번역이나 집중연구를 통한 학술 역량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章疏) 문헌을 조사했다. 연구소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 전해지는 교장문헌 250여 권을 확보해 조사와 연구, 이미지 촬영을 완료했으며 현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다. 신성민 기자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 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60만원
  월령도
  주역, 명리, 성명학 -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암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